

해녀들의 일상, 생명력을 엿보다

해녀박물관·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해녀촬영대회 우수작품 전시회'

등록 : 2010년 04월 01일 (목) 18:39:50
최종수정 : 2010년 04월 01일 (목) 18:39:5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전시작

자식 생각을 하면 몇 발이고 물을 차 바다 속을 헤집는 일이 고되지 않다.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워진 발을 바다는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잠녀의 얼굴이 일순 어그러진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물건을 담은 망사리를 끌어내는 것으로 고된 하루가 끝난다.

속옷 차림으로 물에 들 때도, 고무옷을 입고 그나마 사정이 나아진 지금도 잠녀들의 고단함은 여전하다.

그런 그녀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자연을 향해 토해내는 강한 에너지를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해녀박물관(관장 김동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지부장 박영진)과 함께 해녀촬영대회 우수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30일까지 해녀박물관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전국에서 온 2000여명의 작가들이 중문·서귀·효돈동과 상모·사계리에서 촬영한 작품 중 수상작만을 엄선했다.

목숨을 걸고 이뤄지는 바다에서의 작업과 물질을 마친 뒤 자연스레 비취지는 만족감, 그녀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일상이 바로 옆에서 이뤄지는 듯 생생하다.

한편 ㈜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는 해녀들의 삶의 현장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매년 전국해녀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등지에서 수상작전시회를 열고 있다.